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임분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3: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820 © 2004 충현교회

THE WEEKLY CH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영현 편집: 이태복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금요일전) - 천국 복음

제2장.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제3장. 장래에 입할 천국

제4장. 이 세상에 있는 천국

제5장. 천국의 비밀

제5장 천국의 생명 (2)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고전 15:50), 우리의 영혼만 몸은 생령에게 삼긴 바 될 것이다. 생령은 우리 몸의 구속까지도 포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혈과 육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몸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전 15:51-54). 생령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요,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제 22:1-2).

생령의 본령이 장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간절히 소망한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고 덧입고자 함이었다. 죽을 것이 천국의 생령으로 삼긴 바 되는 것이었다(고후 5:4). 이러한 생령, 곧 천국의 생령은 전인(全人)과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고전 15:50), 우리의 영혼만 몸은 생령에게 삼긴 바 될 것이다. 생령은 우리 몸의 구속까지도 포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혈과 육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몸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전 15:51-54). 생령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요,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제 22:1-2).

생령의 본령이 장래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서 사해하게 더 배울 수 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b).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이 세대의 마지막 날인 ‘그 날’에만 생명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전지 올 세대의 이 생령이 현재의 악한 세대에서 싸워질 몸을 입고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오신 것이다(롬 12:1). 요한은 이 진리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한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요 3:36).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그렇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생령에 삼긴 바 되는 날을 애타게 사모한다(롬 8:23).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영생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장면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며 고통과 죽음을 겪는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생이 지금 현재와 미래에 모두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앞서 공부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두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영생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장래에 속하였으나 악한 사단과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인간을 풀어주기 위하여 현재 이 세대 안에서 침투해 들어온 것처럼, 영생도 분명히 장래에 속한 일이나 이 악한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과 썩어짐 가운데서 영생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새로운 탄생, 곧 거듭남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이 생명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영생은 무엇인가? 먼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성경에서 ‘아는’ 것은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 서로 같은 교제가 있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영생은 우리가 이미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되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미 그의 생명을 체험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전 6:19-20).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과 권능으로 임할 때 ‘그 날’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롬 31:31-34).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세대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생령의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고전 13:12). 이처럼 영생은 지금 여기 이 세대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으며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오, 주여! 이런 생령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2004년도 전반기 자원봉사를 결산하면서

지난해부터 교회 주변 환경을 각 구역과 부서가 일정 지역씩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관리하며 돌보도록 한 이후로 교회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 지난해에는 총 2,740명의 성도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총 1,448명이 참여하였다. 교회가 신령한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외적인 환경까지 돌아보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는다(히 6:10). 그런데 상반기 자원봉사 결산을 하면서 한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많은 성도들이 급속같은 시간과 물질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교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한편에서 어떤 교구나 부서에서는 단 한 번도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 다윗에게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거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삼하 7:2b). 다윗은 자신이 사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교회의 환경을 더 좋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고백을 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영적인 일들이다. 신령한 예배, 천국임분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외적인 환경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외적인 환경도 우리 손으로 바꾸도록 하자. 우리 모두에게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올 하반기에는 그 마음을 적극 표현하여 각 교구와 부서별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

“여름계절학교, 우리 모두의 일일이다”

이번 주, 7개 교회학교에서 여름계절학교 및 수련회 실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곧 우리의 일이다. 우리가 직접 책임을 맡고 있는 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신령한 일들이 다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요 놀라운 특권이다(딤후 1:12). 이번 주에는 일곱 개 교회학교에서 여름계절학교 및 수련회를 실시한다. 여기에 그 명단과 일정을 낱알이 게시하는 까닭은 우리 모두가 기도도 협력하여 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명단을 참고하여 각 교회학교의 집회를 위하여 특별히 집중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학교의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것과 같이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십자가의 장병으로 거듭나며,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 5:16)

부서명	기간	장소	주제
유년부	7월 26일(월)~27일(화)	제1교육관3층	거듭난 천국임분
초등부	7월 26일(월)~27일(화)	제1교육관4층	거듭난 천국임분
신년부	7월 26일(월)~27일(화)	제1교육관5층	거듭난 천국임분
중등1부	7월 26일(월)~28일(수)	충현기도원	거듭난 천국임분
중등2부	7월 26일(월)~28일(수)	충현기도원	거듭난 천국임분
중등3부	7월 26일(월)~28일(수)	충현기도원	거듭난 천국임분
고등부	7월 29일(목)~31일(토)	충현기도원	거듭난 천국임분



AGAINST THE GOSPEL

"(16)However, they did not all heed the glad tidings; for Isaiah says, 'LORD, WHO HAS BELIEVED OUR REPORT?' (17)So faith [comes] from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Christ. (18)But I say, surely they have never heard, have they? Indeed they have; 'THEIR VOICE HAS GONE OUT INTO ALL THE EARTH, AND THEIR WORDS TO THE ENDS OF THE WORLD.' (19)But I say, surely Israel did not know, did they? At the first Moses says, 'I WILL MAKE YOU JEALOUS BY THAT WHICH IS NOT A NATION, BY A NATION WITHOUT UNDERSTANDING WILL I ANGER YOU.' (20)And Isaiah is very bold and says, 'I WAS FOUND BY THOSE WHO SOUGHT ME NOT, I BECAME MANIFEST TO THOSE WHO DID NOT ASK FOR ME.' (21)But as for Israel He says, 'ALL THE DAY LONG I HAVE STRETCHED OUT MY HANDS TO A DISOBEDIENT AND OBSTINATE PEOPLE.' (Romans 10:16-21)

This Bible passage talks about people who disobey the gospel. It mentions the prophet Isaiah's cry, "Lord, who has believed our report?" It shows Paul's concern for the Jews who indeed heard God's good news, but rejected it. Even today, God's servants preach His message, but believers disobey it. They go to church, listen to God's Word, but only hear what interests them. They disobey the Word of God. They go against the gospel! Their corrupt and stubborn hearts make them value temporary pleasures over eternal happiness. Instead of believing God, they believe in their own methods and opinions. They want the comfortable life here and now, so they go to church to listen and practice for earthly pleasures. They do not sincerely love God's Word. They do not trust God. They do not obey the gospel, and their disobedience leads to the accumulation of more sin. God told Israel, "All the day long I have stretched out My hands to a disobedient and obstinate people" (v. 21). God implores you to turn to Him. Like Israel, please do not continue to go against the gospel.

The gospel is God's command to humans. Jesus said,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Mk. 1:15). On judgment day, no one will have an excuse because, "God is now declaring to men that all people everywhere should repent" (Acts. 17:30). This does not come to us by human authority, but by divine order. This is God's grace and curse. If you repent, you will be blessed, if not, you will be destroyed. The Holy Spirit, through believers, will set forth the truth of the gospel in such a clear light that people are able to accept or reject it intelligently. Jesus said, "And He, when He comes, will convict the world concerning sin and righteousness and judgment; concerning sin, because they do not believe in Me" (Jn. 16:8&9). Jesus Christ is the gospel.

It is a sin to refuse the gospel. You have the wonderful opportunity to choose. Jesus told His disciples,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He who has believed and has been baptized shall be saved: but he who has disbelieved shall be condemned" (Mk. 16:15&16). Whoever is humble and believes the gospel will receive God's gift, and they will have perfect freedom because they believed Jesus' command. Whoever does not obey His commandment will ultimately receive death. Are you seeking eternal comfort? You have a responsibility to choose His order. Suicide of your physical body is a terrible sin, but is not suicide of your soul even worse? Please, do not be stupid and disregard God's command. The gospel is a wonderful gift. It is the only defense against the grave. It comes down from heaven as a celebration party to which you are invited (see Mt. 22:2). If you throw the invitation in

the garbage, you will face the wrath of God (see Mt. 22:7). The prodigal son repented and returned to his father. He made the right choice. We have the opportunity to make the same decision. We can come back to God because He provided a way. He orders us to take this one and only way. Please obey the gospel.

Why should we obey the gospel? Foremost, the gospel is God's commandment. He is the Creator God and we are His creation. It is utter stupidity for created beings to go against the Creator. The gospel contains the love of God. If you ignore salvation, you insult God's love. God has given us His only begotten Son,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This gift is measureless! God's heart is at the center of His gospel. Jesus told the crowd, "For this is the will of My Father, that everyone who beholds the Son and believes in Him will have eternal life, and I Myself will raise him up on the last day" (Jn. 6:40). The gospel is realized in Jesus Christ. He said, "He who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has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on the last day" (Jn. 6:54). Ask yourself right now whether you should accept or refuse the gospel. If you are delaying by thinking you need to consider it more, I beg you not to hurt your soul any further.

My dear friend, the gospel is not just about hearing, liking, professing, or even proclaiming the good news, but it is all about obedience. Obedience requires faith in Jesus Christ. It means giving up your own righteousness, your own will, and repenting and living under His teaching and will. You do not belong to yourself, but to Christ. Without Christ, your heart is hard and your neck is stiff. When you give up and give yourself completely to Jesus, your heart softens and your neck relaxes. Make the decision to listen to Jesus' voice. Deny yourself, take the cross He has given you, and follow Him heavenward with faith. This is total obedience. This is the message in today's Bible passage. Paul wanted the church at Rome to understand that "faith comes from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Christ" (v. 17). The Jewish people heard the good news, but disobeyed it. Paul wanted to make sure that believers were really obeying. Let us be humble, repent, and ask Jesus to forgive us and come into our hearts. Let us ask Jesus to help us deny ourselves, to give us the strength to take our cross that He made for us, and to give us the faith to follow Him by His will, not our own. Let us deeply pray for God's help in obeying His gospel. Without the gospel, we are lost because no one b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can unite us with God. Amen. 🙏

【다음을 주일 설교】

복음을 순종하라

¹⁶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¹⁷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¹⁸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¹⁹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키나케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²⁰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²¹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르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롬 10:16-21).



김성환 목사

오늘 본문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탄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또한 본문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서도 그것을 거부한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깊은 열정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그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고 설교를 귀담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것만 골라듣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복음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보다는 잠시잠깐의 쾌락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방법이나 의견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의 쾌락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오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불순종이 계속되면서 죄도 그만큼 높아 쌓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르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21절).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돌아오라 고 간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집을 피우며 복음에 불순종하고 거스르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복음, 모두가 순종해야 할 명령

복음은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분의 일이 되면, 아무도 절대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였기 때문입니다(행 17:30). 이 명령은 인간의 권리로 우리에게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내려졌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주가 담겨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매우 선명하게 드러내실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요 16:8,9).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보다 큰 죄는 없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께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5-16). 겸손하여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믿은 고로 완전히 자유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위로를 얻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자살이 극악한 죄라면,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도록 방치하는 영적 자살은 얼마나 더 극악한 죄이었습니까?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십시오. 복음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혼인 잔치와 같고 여러분은 거기에 초대되었습니다(마 22:2). 만일 여러분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마 22:7). 당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똑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 길로만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에 순종하십시오.

복음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

왜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거스른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무시해 버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요 6:40).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요 6:54).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옳은지 거부하는 게 옳은지 여러분 스스로 잘 따져보십시오.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거절하고 계십니까?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듣거나, 좋아하거나, 고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의와 의지를 다 포기하는 것이며, 회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 아래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완악하고 여러분의 목은 교만으로 굳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럽고 여러분의 목은 겸손으로 풀이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들을 들었노라고 결심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여러분께 얹어주신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그리고 천성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바로 이것이 전적인 순종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17절)라는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신자라면 누구나 복음에 참으로 순종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고 회개하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복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잃어버려진 영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수집사 합법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현신을 다짐하며 힘쓰는 안수집사회



이 부 성(안수집사회 서기)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도 없게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권과 같이 이세도 온전히 대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리 하나니"(골 1:20).

몸된 교회의 허리와 같은 중직을 맡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은 저희 236명의 안수집사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대로 그 곳이 어대만 곳이라도 주저함 없이 이 몸 바쳐 "내가 여기 있다이다 나를 보내소서"(사 68:1)과 간청하며 자행하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몸된 교회의 존귀한 청지기로서 열심히 충성하는 안수집사들의 모임이다.

안수집사회는 고분장로와 지도목사, 회장단(회장, 부회장, 서기 일반, 특별회계)과 각대간사(45대부터 16대까지)와 8개 부서로 구성되어 교회와 안수집사회에 관한 일들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특별히 교회 5대 목표를 앞장서서 실천하고 공경이에는

15분전까지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며 교회세백기도회는 물론이고 안수집사회 새벽기도와 성경공부, 그리고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24시간 연속기도와 월례회, 노방전도, 부부합동기도회, 수련회, 팀장교육 등 영적훈련을 통해 주님의 명령만 있으면 주저 없이 어떤 명령이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훈련을 통해 늘 준비하고 달려갈 수 있는 기동력과 헌신을 다짐하고 있다. 특별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 28:19),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막 16:15), "내 양을 먹이라"(요 21:17)라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유언인 선교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팀장으로서, 총무 및 팀원으로서 열심히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에도 교회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기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안수집사들은 지역의 팀장과 총무 및 팀원으로서 혹은 부서의 팀장으로서 팀을 앞장서서 인도하고자 세계 열방의 미전도 지역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다. 금년도에 6월말 현재 44개 팀의 지역팀장으로서 선교를 다녀왔고, 7월부터 10월까지 지역의 100개 팀을 이끌고 열방으로 선교사역을 떠날 예정이다.

안수집사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을 구분하여 사역을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은 교회 선수를 위해 헌신하고, 사기배회 등 회원간의 겉조사 및 방상에 있는 회원들 정기적으로 심방하는 등 회원 간의 사랑과 친교를 통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 더욱 충성된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매주일 제교육관 70호 안수집사회실은 회원들의 뜨거운 기도와 친교로 서로 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도 나누고 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나.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메시지

이에 여호와와 불이 내려서 (왕상 18:36-39)

열왕기상 18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 삼 년에 여호와와 불이 내려서" 많은 날 동안 엘리야는 아합 왕의 핍박을 피해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많은 사람들이 아합의 길을 좇아갔을 때 타협하였다. 엘리야만 홀로 남았다. 아합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신앙 문제를 해결하여라.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자신이 각각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편을 참 하나님을 섬기는 편으로 인정하기로 약속한다. 영적 전쟁이다. '누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를 가르는 영적 싸움이다. 엘리야는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단을 쌓고 물을 여러 번 부었다. 물은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하게 되었다.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불이 꼭 필요하였다.

불은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을 나타낸다 - 우리는 성경에서 '불'이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을 상징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불이 내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성막 안에 있는 단에는 불이 끊이지 않고 타올라야 했는데(레 6:12,13), 이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다. 모세는 40년 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외로이 있었지만, 호렐산 필기나무 가운뎃 피어오른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게 되었다(출 3:4).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며 그 불로 쓰셨던 것이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불의 재앙'도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징이었다(출 9:23). 훗날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거행할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빈제물과 제물들을 살렸는데, 이 역시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의 상징이었다. 아합의 군대 사신자 엘리샤를 포위하고 있었을 때, 엘리샤의 사환 개하시리는 불판과 불병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샤를 두른 것을 보았었다(왕상 6:17).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강력하게 증거하였다(마 3:11). 오순절에는 성경에서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일하셨다(행 2:3). 히브리서 기자는 말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히 12:29). 이렇게 '불'은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을 나타낸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불이 필요한 때이다. 엘리야가 단을 쌓아놓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기를 원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만민에게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나온 그들! 그러나 세상의 축복과 문화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정치를 배웠고, 그 결과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 종교적으로도 이방종교의 화려한 예식을 배워 겉으로 볼 때 아름다운 종교를 이루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때 이것은 크나큰 타락이었다. 참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을 등진 타락이었다(왕상 16:31-33).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이와 같지 않은가? 참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외식과 형식만 남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으로 밀려져버렸다. 훌륭한 인격자가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을 받는 안타까운 세대이다. 아합의 시대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되어 세상의 존경과 명예를 추구하는 악한 세대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시대에말로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세대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고후 6:15,16). 불이 내려와 모든 우상을 태워버려야만 한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뿌리깊이 내려진 우상의 세력을 어찌 인간의 힘으로 뽑아낼 수 있단 말인가! 여호와의 도음이 절실히 필요하신다(사 46:1). 그리스도 엘리야처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단에 바치고 비고 비인 마음으로 하늘로부터 임할 불을 기다리도록 하자(왕상 18:30,31).

불은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 - 단에 물을 붓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엘리야!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 저쳐보고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큰 능력으로 나타나야만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다.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믿고 따르는 미련한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왕과 왕족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너무나 강한 세력을 이루고 있다. 사람의 능력으로서로는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져야 한다.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성령의 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내려져야 한다. 엘리야는 기도한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와 하나님이나 신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고자 하옵소서"(왕상 18:37).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리요?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여호와와 불이 하늘로부터 강하게 임하였다. "이에 여호와와 불이 내려서 반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끓였더라"(왕상 18:38).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주로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마침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한다(왕상 18:39).

불은 앞으로 내려질 것이다 - 갈렐산에서의 저 화려한 승리가 있는 후에도 불은 내려졌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120명의 제자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셨다(행 2:28,29). 불같은 성령에 대한 약속은 '주 우리 하나님이나 알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다(행 2:38,39).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불을 간구하여 한다(마 7:7). 이 약속을 믿고 성령의 불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성령의 불을 마음에 품고, 가서는 곧마다 성령의 불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엘리야를 보라. 그는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였다. 흠으로 지니 있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큰 세력을 이기내었다. 그렇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약한 것이 되고, 우리의 작은 것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약한 것이 되고, 우리의 부능력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 믿음으로 이런 연애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인격이나 이 세상 것들과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에게 내릴 것이다. 우리의 자아와 오감을 다 죽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주의 은혜를 힘입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자. 성령의 불을 구하자. 아멘!

우리가 약할 때 일하시는 주님

성교지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꼭 작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사역지에 도착한 순간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도라"(골 4:3b). 선교를 앞두고 건강이 안 좋아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았던 대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한 모습에서 담대하게 변화했습니다. 비겁한 출장부들이 복음의 대장부가 되었고,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사사사역에서도 비밀경찰들의 감시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씩씩하게 뛰어다니셨습니다.

선교 사역 중 골육스러운 관계가 발생하거나 곤란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물려있는 보화를 찾기 위하여 그 발을 동쪽으로 사는 마음으로 불필요하게 보이는 일들을 인내로 감수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은 그 힘을 자랑하고 약한 사람은 한숨 쉬며 강자를 질투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가난하고는 믿고 빌기보다는 자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집사님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질 마지막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심정으로 전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또 힘든 일을 만날 때면 바울 선생님을 생각하였습니다.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시고 만날 수 없는 이들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 낯선 땅에서 외롭고 낙심해 있을 때 그 나라의 풍성한 밀밭에서 소산된 땅 한 평과 주님과 신실한 나무 열매를 따서 환한 얼굴로 격려해주신 시골 주민들! 루디아와 같이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불러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뿌리고 온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서 좋은 열매가 맺히길 기도합니다.

신호(회집사, 8교구)

자기 부인

'세상 일을 더 사랑하는 내가 과연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 줄 영혼이 있을까? 성령을 받고 관용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듣는 영혼도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텐데...'. 주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나의 의를 위하여 매일 형식적인 기도생활만 해왔던 내가 성령을 받을 리 만무한데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비행기 안에서 사역지를 바라보며 먼저 겁부터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훈련기간 동안 남의 눈을 의식하여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하늘나라를 위해 제대로 간구하지 못한 나의 마음을 아는 주님은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을까?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떠나야 하는 자가 아무런 영적 무기로 없이 전쟁터로 나가면 되도 그 동안 직분을 받고 봉사한 것과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교회출석표에 도장 찍는 일에 열중한 것을 자랑하며 당당히 나섰던 단기선교! 그것도 불쌍한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니라 누가 다녀갔기에 어쩔 수 없는 처신 때문에 떠나신 단기선교! 진정한 주님의 사역지는 영혼보다도 더 불쌍한 나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 주실까? 열려와 근심이 앞서는 가운데 공항을 내려 속속도 도착하여 도착예배를 드릴 때까지도 팀원들이 하는데 따라하면 될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팀의 사역이 어려워지고 사역지로 정해진 곳으로 갈 수 없게 되자 이렇게 된 것이 나의 믿음과 기도의 부족 때문인 것 같아 내 마음은 두렵고 떨렸다. 그 동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하며 기도했다. 성령님은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로지 주님에만 매달리는 심정으로 간구하게 하셨다. 팀원들 모두 손잡고 성령님이 우리의 사역을 인도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였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일정을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였다.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은혜 주님의 뜻대로 사역을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린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기쁨으로 넘치는 것을 체험한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더욱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중언이 되고자 한다.

조규하(집사, 9교구)

앞으로의 소망은

선교가 처음이라 두렵고 떨렸다. 내가 부족하여 단기선교를 가서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했다. 그리고 특히 1인 1전도를 하지 못하면 나쁜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 모두 단기선교를 못 간다는 말에 마음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단기선교를 여러 번 포기하려고 했으나 동료 성도들의 권유로 단기선교를 가게 되었다.

국내에 있을 때 교회에 다니다가 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권유하여 교회에 함께 한 내 작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생활 30년 평생에 전도지 한 번 전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하여 열심히 전도하는 다른 팀원들을 바라만 봤다.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키가 매우 커서 말을 걸기도 겁이 났지만 그래도 일단 말을 시켜보니 유순하게 잘 들어주었다. 순박한 그들의 모습에 용기가 생겨 어색한 그 나라말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전도를 하다 길에서 한 청년을 만났다. 그 청년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끝까지 다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매우 기뻐해서 '넘버 원'이라고 격려해 주었다. 한 국내에 돌아와서도 새벽기도 때마다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의 부족한 언어로 전하는 복음을 끝까지 들어주던 순박한 그들이 정말 좋았다. 정작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야 할 날씨가 되었을 때에는 그곳에 더 있고 싶을 정도였다. 남 앞에서 웃거나 이야기하는 것조차 서먹하고 부끄러워하는 내가 피부색과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웠다. 모든 어려움을 다 뛰어 넘을 수 있었던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 앞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려고 한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황지희(집사, 10교구)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7월 26일(월)-8월 3일(월)	10교구 6지역	강한호	7월 28일(수)-8월 6일(금)	12교구 6지역	이성섭
7월 26일(월)-8월 4일(수)	대학부27	염병섭	7월 28일(수)-8월 7일(토)	12교구 7지역	이영선
7월 26일(월)-8월 4일(수)	6교구 4지역	김태식	7월 28일(수)-8월 6일(금)	4교구 9지역	신선길
7월 26일(월)-8월 3일(월)	7월 17지역	정선현	7월 28일(수)-8월 6일(금)	5교구 2지역	장석우
7월 26일(월)-8월 4일(수)	15교구 2지역	강희복	7월 28일(수)-8월 6일(금)	18교구 2지역	김기호
7월 26일(월)-8월 4일(수)	17교구 9지역	안병호	7월 28일(수)-8월 7일(토)	4교구 2지역	오순도
7월 26일(월)-8월 5일(목)	6교구 1지역	박성준	7월 29일(목)-8월 5일(목)	1교구 1지역	이보신
7월 27일(월)-8월 4일(수)	7교구 3지역	임정식	7월 29일(목)-8월 5일(목)	1교구 2지역	김신진
7월 27일(월)-8월 4일(수)	11교구 4지역	김진희	7월 29일(목)-8월 5일(목)	2교구 2지역	이종태
7월 27일(월)-8월 4일(수)	4교구 8지역	김희선	7월 29일(목)-8월 6일(금)	대학부28	이성태
7월 27일(월)-8월 4일(수)	7교구 5지역	전재석	7월 29일(목)-8월 5일(목)	18교구 5지역	이홍현
7월 27일(월)-8월 5일(목)	예배대부2	조훈환	7월 29일(목)-8월 7일(토)	16교구 2지역	현준봉
7월 27일(월)-8월 5일(목)	4교구 10지역	류기영	7월 29일(목)-8월 7일(토)	14교구 7지역	김민용
7월 27일(월)-8월 5일(목)	3교구 4지역	김호준	7월 29일(목)-8월 6일(금)	청년(1)3	최지은
7월 27일(월)-8월 5일(목)	3교구 5지역	이경재	7월 30일(금)-8월 7일(토)	2교구 3지역	구재만
7월 27일(월)-8월 5일(목)	8교구 2지역	추병창	7월 29일(목)-8월 6일(금)	청년(2)3	이기욱
7월 27일(월)-8월 5일(목)	7교구 1지역	박용근	7월 30일(금)-8월 9일(토)	대학부29	윤우선
7월 28일(수)-8월 4일(수)	청년(1)2	전홍철	7월 31일(토)-8월 7일(토)	청년(1)4	이형호

▶ 안재 사역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7월 19일(월)-7월 28일(수)	대학부 23	이성혜	7월 20일(화)-7월 31일(토)	대학부 26	안창덕
7월 19일(월)-7월 31일(토)	1교구 7지역	양현민	7월 23일(금)-7월 31일(토)	5교구 3지역	김중훈
7월 20일(화)-7월 28일(수)	3교구 1지역	최희하	7월 21일(수)-7월 30일(금)	6교구 5지역	이세영
7월 20일(화)-7월 29일(목)	대학부 24	김현철	7월 21일(수)-7월 31일(토)	14교구 6지역	강민수
7월 20일(화)-7월 29일(목)	6교구 7지역	안상직	7월 22일(목)-7월 30일(금)	9교구 1지역	동방용운
7월 20일(화)-7월 30일(금)	대학부 25	이규우	7월 22일(목)-7월 30일(금)	17교구 1지역	송영준
7월 20일(화)-7월 31일(토)	2교구 10지역	강두형	7월 22일(목)-7월 31일(토)	17교구 10지역	권병철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7월 12일(월)-7월 20일(월)	대학부 21	김승곤	7월 12일(월)-7월 21일(수)	17교구 3지역	한민혁
7월 12일(월)-7월 21일(수)	대학부 22	장승국	7월 13일(화)-7월 21일(수)	6교구 2지역	김구석
7월 12일(월)-7월 21일(수)	17교구 5지역	김재홍	7월 14일(수)-7월 22일(목)	18교구 6지역	이인영
7월 12일(월)-7월 21일(수)	17교구 4지역	이호일			

새가족들에게 띄우는 편지 ①

제가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찾은 것은 올해 1월 1일 충현교회 신년예배였지요. 이전부터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시던 어떤 선생님의 계속되는 권유도 있었지만, 그때는 선생님의 그 말씀이 웬지 마음에 와 닿지 않았어요. 사실 그 때가지만 해도 세상에 믿을 것은 나 자신 밖에 없다고는 생각했거든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면 어디엔가 자주 기대려고 하는가?' 싶어서 그런 사람들을 함성처럼 여기기도 했지요. 진정한 강함은 자기 스스로를 믿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점차 제 자신의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었고 제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의 힘으로 배워 나갈 수 없는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막연하나마 하나님을 찾게 되었지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이끌어주셨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의 약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으려만 만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장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요. 성경도 읽지 않았고 교회도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알랴야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막연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더 분명히 알도록 어떤 일이 있었지요. 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는 권유하시던 선생님께서 학원을 세우셨는데, 그만 그 학원이 도산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선생님은 아무런 흔들림도 없이 이전과 똑같이 평안한 모습으로 살고 계신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신기하고 부러웠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저

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선물로 준 책을 열심히 읽으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러던 중에 충현교회를 다니던 같은 과 친구의 인도로 충현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 때가 지난 1월 1일이었지요. 태어나서 처음 참석했던 신년예배가 아주 좋았어요. 3월부터는 새가족부에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양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지요.

생각해 보면, 상으로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든 것 같아요. 저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여 해를 주고 말로 권유하던 친구들요. 그런데 나중에 안 것이지만, 제가 정말로 오래 기다리도록 한 분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었지요. 저를 생명과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부르고 계셨는데, 저는 계속 거부하면서 버티고 서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거부했는지 이제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고맙기만 합니다. 좀 더 일찍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면 늘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고 서투르지만, 늦게 시작할 만큼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취부/윤정아)



어린이와 같은 믿음



'선생님!!' 아이들의 밝고 우렁찬 목소리가 귓가에 들립니다. 매주 일마다 만나는 아이들이지만 정말 한명 한명이 어찌나 사랑스러울지 그 아이들과 언제나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나이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자' 아니라면 절대로 전국에 돌이켜주지 못하겠지요 (마 18:3).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련하게도 이 말씀을 초등부에서 봉사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니다.

저는 교회 다니지 오랬동안, 또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내가 만난 주님은 뒤에 세워두는 데 말만 앞서었습니다.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친구를 전도함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겠다고 그 친구 손을 붙잡고 나오는 그 어린이야, 쉽게 전도하고 쉽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어린이와 다른 순진한 믿음이 정말 저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러한 아이들을 섬기게 되며 다시 한번 한없이 부족한 저를 발견합니다.

지난 겨울계절학교에는 선교를 가느라고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움과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여름계절학교를 준비하는 지금 몸은 많이 바쁘지만 마음은 아주 기쁩니다. 아이들과 하트를 지내면서 더욱더 가까워 지면 우리도 아이들에 대해 더 알아가면서 기도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만 어린 수준을 떠나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뒤흔들면서 아이들이 더 가까워 오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즐겁습니다. 이번 계절학교에는 '기쁜날 천국일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을 텐데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천국일꾼으로서 다시 한번 내가 최인임을 깨닫고 나사를 돌아보며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초등부 교사)

"나의 나된 것은" (고후 15:10)

두 녀석이 또 도망을 갔다. 예배 시간에 내내 떠돌고 장난을 치더니 분반공부를 시작하자마자 도망을 간 것이다. 1월에 비해 카드 제법 3달째서 이제는 내가 뛰어가 잡아오기에도 숨이 찬다. 간신히 두 녀석을 잡아 앉혀 놓고 다시 분반공부를 시작하려니 나도 모르게 눈물부터 나려났다. '주님, 제가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순간 이런 생각이 불꽃 뿜었다. 그리고는 내내에는 절대로 교사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렇게 매주 골치 아픈 녀석들과 씨름하는 것 말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를 해야지' 라고 다짐, 또 다짐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는 내게 한 장면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십여 년 전 나를 가르쳐주었던 교회학교 선생님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학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였다. 예배 시간에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의일과 설교보다 즐거웠고, 분반공부 시간에는 공과책보다 간식에 더 눈이 갔던 내 모습... '아, 주님은 그런 나도 사랑하시고 다 용납해주시며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니 순간 너무나도 부끄러워졌다.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었던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다.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최인들을 위해 끝까지 참으시고 돌아가신 십자가 위의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진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회개하게 된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일은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일인데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나약한 내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너무 부끄럽다. 그렇지만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주님, 사랑스런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의 빛 양육 받아 훗날 하나님의 기쁨, 주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성민(중등1부 교사)

장년2부 수련회를 마치고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서 올해도 많은 교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여름수련회를 준비하였다. 도리어 출발일이 되었다. 저녁 5시에 출발하여 충현교회로 돌아오니 모두 안전하게 도착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개회 예배를 드렸다. 매칠전부터 기상정에서는 장미에 풍뎡까지 몰아다쳐 심상치 않은 일기가 될 것을 누누이 예보하고 또 예보하였다. 그런데 막상 좋은 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잠시 후 저녁을 맛있게 먹고 천국전지 자리에 가는 기본으로 즐겁게 모두 모여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서 저녁 부흥집회가 시작되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임술의 제자들'이다 (호 14:1-7)였다. 처음에는 '어떻게 임술로 제사를 드릴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말씀에 참여하게 되었고 말씀을 듣다 보니 땀뻘하고 세상 생각에 복잡하던 우리 마음이 점점 하물어지는 듯 하였고 서서

히 녹아지기 시작하였다.

단 위에선 포도주는 말씀은 회개를 통해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들은 통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했다. 그리고 개개인 자신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는 통성기도 시간을 가졌다. 우리 모두는 서서히 기도해 임되기 시작하였고 얼마 후 급기야는 모두들 눈물을 흘리며 임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 도실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나는 눈물이 흐르며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번 수련회가 잘 준비된 일정과 계획 안에서 잘 이루어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이번이 받은 이 은혜가 홀드되지 않게 기도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임술의 제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남은 생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십자가의 길로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한다.

임선영(장년2부 교사)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 4자회 월례회
일시: 28일(수) 오후 1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2. 군전도의 월례회
일시: 30일(금) 1800 (17:30 식, 만나눔)
장소: 베다니홀

발세

1. 박수민 타교집사 정장수 타교장로의 모친, 박태순 집사의 시모, 3교구 전달제 2구역/ 10일 별세, 12일 장례
2. 남효용 씨 장자인 주 집사의 장인, 남영은 집사의 부친, 3교구 도곡한신구역/ 18일 별세, 20일 장례
3. 이순자 타교집사 강경기 집사의 모친, 윤경희 집사의 시모, 5교구 개포 3구역/ 18일 별세, 21일 장례
4. 이소형 타교집사 이현옥 집사의 부친, 고근하 집사의 장인, 13교구/ 20일 별세, 22일 장례
5. 이숙국 집사 강사자 권사의 남편, 이현직·이윤직 성도의 부친, 1교구 국가4구역/ 20일 별세, 22일 장례
6. 정진녀 타교집사 황봉준 성도의 시모, 1교구 대매면3구역/ 22일 별세, 24일 장례

◆ 2004년도 전도위원회 상반기 회계감사

- 전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상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기간: 7월 첫 주~6월 마지막 주일까지
 2. 대상기간: 2004년 1월~6월
 3. 감사장소: 전도위원회 (제1교구 6층)
 4. 준비서류: 시산표 2부(2004년 1월~6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 2004년도 감사위원회 상반기 회계감사

1. 감사기간: 7월 첫 주~6월 마지막 주일까지
2. 감사대상: 전도위원회를 제외한 교회 각 부서
3. 감사기간: 2004년 2월~6월 4. 감사장소: 감사위원회실 (제1교구 302호)

◆ 16교구 태산지 초정침회

1. 일시: 오늘 14:00 2. 장소: 흥천복지관 지하 1층

8월 주일 및 수요일 예배 기도담당

월	일	주일 예배 (경로)					찬양 예배 (인수집사)	수요일 예배	
		I	II	III	IV	V		I	II
8	1	이재민	노광현	이병하	김단웅	김환기	최정남	이수자	이종석
	8	이태식	원윤성	남진우	최윤덕	황의만	김창중	김영숙	김정희
	15	박용규	정운식	한승규	박덕안	김구형	전준배	이영숙	박인애
	22	권명옥	윤석민	이형수	김승곤	이달옥	이태식	이혜자	김정자
	29	엄필성	이창호	김영수	함철주	정철환	조종천	윤옥자	김옥순

직원 모집

1. 모집부서: 원로목사 차관 기사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2. 자격: 세례교인
3. 채용 서류: 자필 이력서·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집사인 경우)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흥천교회 사무국
☎ 552-8200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26(월)	27(화)	28(수)	29(목)	30(금)	31(토)	1(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상관/윤석민	이종대/조재철	김교성/김종만	이경준/장부조	방준영/함용식	김준희/김말자	이종철/안태순

예배담당 안내 (7/28-8/1)

날짜	예배	예배 전찬양	시	기도	설교
7/28 수요일			김용덕	남 회	첫것과 둘째것(히 10:19-18) 김성관 목사
7/28 수요일			이경준	신노자	잃어버린 아들(레 15:25-32) 윤수일 목사
7/30 금요일		소프라도 김승자/신봉자장부 주창만/배이윤원 임지희/이연 한양대	이태복		김성관 목사
8/1 주일 I			정종진	이재민	복음을 순종하라(롬 10:16-21) 최정남 목사
8/1 주일 II		나의 영원한 신 기일 외/소프라도 정정희(한양대/우정양대 송모이스트)	노광현	김용덕	복음을 순종하라(롬 10:16-21) 김영훈 목사
8/1 주일 III		큰 죄에 빠진 나를 외/소프라도 정정희(한양대/우정양대 송모이스트)	류병희	이병하	복음을 순종하라(롬 10:16-21) 정영민 목사
8/1 주일 IV		주 예수님은 돌에 외/돌로 권로인(외/요제프)	하종철	김단웅	복음을 순종하라(롬 10:16-21) 임현덕 목사
8/1 주일 V		십자가 그늘 밑에 외/비리만 이성민(반면 광양대 송모이스트)	장 훈	김환기	복음을 순종하라(롬 10:16-21) 이희석 목사
8/1 주일찬양			김교성	최정남	성회(레 23:15-22) 이종대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수학, 외국어 등 특별 예배)	
	IV 오후 1:00(국악 등 특별 예배)	본 당
찬양 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1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일 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회	시간	차량
효종교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학회	오후 11:00	금요일 오후 본당 앞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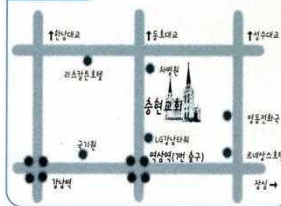
구분	시간	장소
영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교육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40	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 목 4: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정오 2:00	제2교육관 4층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회.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7월 충현 기도의 향

1.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2. 예배 때마다 영세 전투터 감우에 왔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당대해 선포되게 하시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열려 감화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3.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4. 충현교회의 단기선교지역을 통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5. 여름계절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을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교회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입문이 되게 하소서.
6.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여 믿을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성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 이종대 정영민 박인기 여영기 류병희
 - 이종철 김영준 여영근 김교성 안창덕
 -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고광환
 - 위건환 김희현 김성주 장 훈 임현덕
 - 이희석 최정철 하종철 안치원 이태복
 - 정종진 양재호 이철진 조규호 최정규
 - 이재경 이경준 이창수 김준희 윤수일
- 남전도사 송효환 (신부)
- 어전도사
- 정영희 신동주 윤원국 현영준 김연식
 -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현
 - 조옥자 강덕원 정재국 최문실 전은희
 - 김영순 김경자 이수경 김정희 이복순
 - 류진희
- 찬양감독 강임규 ■ 전임지휘자 서준성
- 전담목장장 김소연
- 협력선교사 하효섭 (신부)